



왼쪽부터 현대차 투싼, 제네시스 더 뉴 GV70, 기아차 카니발.

4분기 성수기 잡아라 ... 신차 판매 총력전

자동차 시장의 최대 성수기로 꼽히는 '4분기'에 접어들면서 국내 완성차 업계가 '신무기'인 신형 모델을 앞세워 격돌을 준비하고 있다.

기아자동차는 쏘렌토에 이어 최근 출시한 신형 카니발이라는 '쌍두마차'로 4분기 공세를 나시고, 현대자동차는 새롭게 선보인 신형 투싼으로 시장을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부분변경을 마친 제네시스의 더 뉴 GV70도 출격 준비를 마쳤고, 국내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시대를 열었던 쌍용자동차의 티블리도 2021년형이 출시되는 등 각사의 신자들이 전장을 휩쓸 전망이다.

최근 10년 완성차 5곳 4분기 404만대 판매 ... 전체의 27%

기아차 쏘렌토·카니발...광주공장 셀토스
현대차 투싼 하이브리드 모델도 계약 중
제네시스 더 뉴 GV70 3년만에 부분 변경
차박 가능한 쌍용차 티블리 에어도 가세

5일 국내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4분기는 국내 자동차 업계의 전통적인 성수기로 불리면서 각 분기 중 가장 많은 차가 판매되고 있다.

각사가 발표한 판매 실적을 봐도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국내 완성

차 5개사의 4분기 판매량은 총 404만2684대로 전체 판매량 1495만1749대의 27.0% 수준이다.

과거 연말을 앞두고 각종 프로모션이 이어지면서 4분기 차량을 구매하는 사례가 많았고, 최근에는 신차 출시 시점이 맞물

리면서 판매 증가가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이번 4분기 기아차는 4세대 쏘렌토와 함께 '강력한 무기'로 꼽히는 신형 카니발을 앞세워 시장 선전에 나선다.

국내를 대표하는 '패밀리카'인 카니발은 완전변경 모델이 출시되면서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고 있는 모델이다.

당장 지난해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량 역시 1만130대가 판매된 카니발이었다. 월 판매 1만대를 돌파하며 1998년 출시 이후 역대 최대 월간 판매를 기록했을 정도다.

여기에 쏘렌토 역시 지난해 9151대가 팔리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에서 올 4분

기 카니발과 쏘렌토가 내수 판매를 이끌 전망이다. 또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생산되는 셀토스도 2021년형이 '북방'으로 꼽힌다.

현대차는 신형 투싼으로 공략에 나선다. 투싼은 사전 계약 첫날인 지난해 16일 계약 대수 1만대를 돌파하면서 현대차 SUV의 기록을 새로 쓸 정도로 강력한 상대다.

지난달 28일부터는 하이브리드 모델도 계약을 받고 있으며, 추석 연휴 전까지 약 2만대가 계약돼 10월 출시와 함께 4분기 내수 판매를 이끌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존 그랜저와 아반떼, 신형 싼타페 역시 꾸준히 판매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네시스도 G80에 이어 3년 만에 선보이는 부분변경 모델 더 뉴 GV70 출시를 앞두고 있다.

앞서 티블리를 출시하면서 국내 자동차 시장에 소형 SUV 인기 돌풍을 몰고 왔던 쌍용차도 이달 7일 2021 티블리 에어를 출시해 시장 경쟁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티블리 에어는 2열 좌석을 접으면 1879mm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키 185cm 성인도 '차박'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차박 대세'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한국GM은 지난해 출시한 픽업 트럭 콜로라도의 부분변경 모델 '리얼 뉴 콜로라도'에 기대를 걸고 있는 분위기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마세라티 전 차종 시승해 보세요

31일까지 달라이트 프로모션

이탈리안 하이퍼포먼스 럭셔리 마세라티는 오는 31일까지 가을맞이 달라이트 프로모션(Autumn Delight Promotion)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프로모션 기간 동안 마세라티 광주전시장을 포함한 전국 9개 전시장에 방문한 고객들은 파르포르테, 르반데, 기블리 등 전 차종을 시승해 볼 수 있다. 또 전시장 방문 고객 전원에게는 마세라티 로고가 들어

간 수제 마카롱을 증정하고, 시승 및 상담을 진행한 고객에게는 고급 마세라티 우산을 증정한다.

이외에도 현장 계약 및 출고 고객에게는 1200만 원 상당의 삼성전자 럭셔리 냉장고 '세프컬렉션 마레 블루' 경품 추첨 프로모션이 적용되며, 최초 구입 고객은 평생 동안 소모품을 무상으로 교환해 주는 '마세라티 마스터 케어' 프로모션 등의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싼타페 출시 20년...500만대 판매

해외 74.3% 차지

국내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의 대표적인 모델로 꼽히는 현대자동차의 싼타페가 출시 20년 만에 글로벌 누적 판매 500만대를 달성했다.

5일 현대차에 따르면 싼타페는 2000년 1세대 출시 이후 지난 8월까지 총 500만3414대(공장 판매 기준)가 판매됐다.

국내에서 전체 판매 물량의 25.6%인 128만3997대가 팔렸고, 해외에서는 371만9417대(74.3%)가 판매됐다.

싼타페의 국내 판매량은 국산 SUV 중 가장 많다. 2000년 첫 출시된 이후 2005년 2세대, 2012년 3세대, 2018년 4세대 모델이 출시됐다. 올해 6월 출시된 4세대 부분변경 모델 '더 뉴 싼타페' (사진)는 판매 중이다.

1세대 모델은 2006년 단종될 때까지 7년간 국내 32만7352대, 해외 78만3754대 등 총 111만1106대가 판매됐다.



2세대는 국내 28만8992대, 해외 123만8026대 등 152만7018대가 팔렸고, 이후 7년 만에 선보인 3세대 싼타페는 국내 44만3732대, 해외 130만1254대 등 174만4986대가 팔렸다.

4세대 싼타페는 '인간 중심의 신개념 중형 SUV'를 컨셉으로 다양한 지능형 주행안전 기술이 대폭 적용됐으며, 출시 이후 올 8월까지 국내 22만3921대, 해외 39만6383대 등 62만304대 판매를 기록 중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금호타이어 '굿 디자인 어워드' 수상

세계 4대 디자인 어워드 석권

금호타이어가 최근 '2020 굿 디자인 어워드'(Good Design Award 2020)에서 2개 제품이 본상(Winner)을 수상하면서 올해 세계 4대 디자인 어워드를 석권했다.

굿 디자인 어워드는 일본 산업디자인진흥회가 주최하는 국제 디자인 공모전으로 올해로 63주년을 맞았다. 제품의 디자인, 사용성, 혁신성 등을 종합평가해 수상작에는 'G-Mark'가 부여된다.

금호타이어는 승용차용 신제품 '솔루스(SOLUS) 4S HA32'와 '윈터 포트란(Winter PorTran) CW11' 2가지 제품이 운송장비 및 산업시설 분야에서 본상을 수상했다.

솔루스 HA32는 유럽 전용 사계절 타이어로 모든 계절에 걸쳐 안정적인 주행 및 제동 성능을 보장하는 고성능 사계절 제품으로, 윈터 포트란 CW11은 겨울철 눈길



과 특히빙판 노면에서 최적화된 주행 성능을 구현하는 다목적차량 및 상용차량용 제품이다.

앞서 금호타이어는 올해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독일 Red-Dot 디자인 어워드, 미국 IDEA 디자인 어워드 등에서도 수상한 바 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올해 세계 4대 디자인 어워드를 모두 수상하며 '기술명가'라는 명성을 되찾았다"며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미래를 선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그린알로에

그린궁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